

2026년 7월 셋째 주, 구역 공과

27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27~34절(신약 148)-

예배순서

• 찬송: 309/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10/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나,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자신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

말씀 속으로

먹는 건 중요하다. 한국인의 일상 언어를 보면 온통 밥과 연결되어 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반가울 때, 헤어질 때), “내가 다음에 밥 살게”(고마울 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서양인들 역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빵이나 고기(Meat and potatoes:기본적 핵심)로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은 육신의 결핍을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삶을 반복한다. 그러나 소비 자본주의가 심어준 잘못된 복음은 우리를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쾌락의 쳇바퀴’ 속에 가둘 뿐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양식을 선포하신다.

1. 인간의 믿음: _____가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먹는 문제와 육체의 필요에 지배당하며 살아간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인간 인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뛰어간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온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적 타이밍에 제자들은 오직 가져온 음식에만 마음을 쏟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31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33절) 제자들의 시선은 영혼이 아니라 어렵게 구해온 ‘도시락통’에 고정되어 있다. 그들은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라는 지독한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오늘날의 소비 자본

주의 세상 역시 우리에게 “너희의 결핍은 소비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심어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인당 명품 소비액 1위를 기록할 만큼 소비지상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다. 그러나 심리학의 ‘쾌락의 쳃바퀴’(Hedonic Treadmill) 개념이 말해주듯, 아무리 사들이고 채워 넣어도 인간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언제나 물질과 소유였다(창 4:20~22). 이러한 가인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물질, 건강, 노후가 먼저 해결되어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은혜도 식후경”이라는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갈증의 쳃바퀴 속에 갇히게 만든다.

2.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이 맡기신 _____을 감당하고 그분의 뜻에 _____할 때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민 도시락을 거절하시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선포하신다. 예수님 역시 뜨거운 정오의 땀속까지 스며드는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였다(요 4:6).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터질 듯한 포만감을 누리고 있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4절) 제자들의 눈에는 빵과 고기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복음을 듣고 밀려오는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였다. 예수님에게 사명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영과 육을 채우는 가장 완벽한 양식이었다. 진정한 만족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소유와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할 때 찾아온다. 세상에서도 상위 차원의 기쁨을 아는 이들은 육체의 필요를 초월한다. 일론 머스크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저택을 처분하고 10평짜리 조립식 주택에 살며 화성 이주라는 꿈에 몰두하는 것이나,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 손양원 목사 같은 이들이 사명을 위해 삶을 바친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영적 양식의 기쁨을 말씀하신 자리는 거대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삶이 무너진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신 순간이었다. 주님은 소유에 집착하고 소비에 찌든 우리를 바로 이 사람 살아나는 기쁨, 사명을 이루는 고상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육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차원이 다른 포만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눔과 기도

- 비록 내 몸은 피곤하고 물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영혼을 진심으로 섬기거나 복음을 전했을 때, 혹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물질과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느꼈던 영적 포만감과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여름 교육 부서 사역,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